



# 미국, 「비은행 SIFI 지정에 관한 해석 지침」 발표

채원영 연구원

영약

금융위기 이후, 비은행 SIFI 지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2019년 3월, FSOC는 「비은행 금융회사의 SIFI 지정에 관한 해석 지침」을 발표하였음. 이번 해석지침은 ① 위험평가 시 활동 중심(Activity-Based) 접근법 도입, ②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기준 도입, ③ 비은행 SIFI 지정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투명성 제고를 주된 내용으로 함. 이에 대해 NAIC는 규제당국이 비은행 금융회사 및 상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

■ AIG 등 3개 보험그룹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(Non-Bank SIFI: Non-Bank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, 이하 ‘비은행 SIFI’이라 함)에서 해제된 것을 계기로<sup>12)</sup> 「비은행 SIFI 지정체계에 대한 개선 권고안」(미 재무부; 2017. 11)과 「비은행 금융회사의 SIFI 지정에 관한 해석 지침」(FSOC; 2019. 3)이 발표<sup>13)</sup>됨

- Metlife, AIG, Prudential의 비은행 SIFI 지정 및 해제 절차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보험그룹의 시스템위험 유발 가능성 여부,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평가 기준 부재, 절차상의 투명성 부족이었음
  - 사업 모형에 따른 시스템위험 유발 가능성 여부가 상이함에도 은행과 유사한 규제체계가 도입됨
  - SIFI 지정에 따른 잠재적 비용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의 발생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위험노출도와 자산청산 경로에 따른 영향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았음
  - 또한 SIFI 지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아 절차상의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됨
- 이에 2017년 4월,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에 금융안정감시위원회(FSOC: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, 이하 ‘FSOC’이라 함)의 역할과 비은행 SIFI 지정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함

■ FSOC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시스템위험 평가 체계를 기존 기관 중심(Entity-Based)에서 활동 중심(Activities-Based)·산업전반(Industry-Wide) 중심으로 변경함

12) 자세한 내용은 이승준(2016. 4. 11), 「Metlife의 SIFI 지정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」, 『KIRI Report』; 채원영 (2017. 11. 6), 「AIG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지정 해제」, 『KIRI Report』 참조  
 13) 미 재무부 (2019. 3. 6), “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Proposes Changes To Nonbank Designations Guidance”, <https://home.treasury.gov/news/press-releases/sm621>

- FSOC는 특정 금융활동, 상품, 시장행동(Market Behavior), 구조적 취약성 등에 집중하여 금융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함
  - 이 과정에서 과거자료, 시장참여자의 행동과 관련한 연구자료, 시장 내 잠재적 위험요인 등도 고려함
- 또한 FSOC는 ① 비은행 SIFI 예비 지정 시 비용-편익 분석 시행, ② 위험노출도와 자산청산 채널 평가 시 계량분석 기법 활용, ③ 비은행 금융회사에 재무적 스트레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추가함
  - FSOC는 비용-편익 분석을 시행하여 비은행 SIFI 지정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비은행 SIFI로 지정함
  - FSOC는 위기상황 발생 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한 계량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위험 전달경로 중 위험노출도(Exposure) 평가의 엄밀성을 제고함
  - 또한 FSOC는 자산청산 채널 평가 시 사용되는 계량모형과 보험업권 내 회사별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자산 측정 기준을 개발하여 위험 전달경로 중 자산매각(Asset Liquidation)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함
  - 또한 금융회사의 재무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분석의 엄밀성과 객관성을 제고함
- 마지막으로 FSOC는 지정과정 중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조기에 실시하고 공청회 및 최종결정 투표 기간을 연장하여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, 정보 공개 및 SIFI 지정 후 금융회사에 대한 명확한 안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함
  - FSOC는 비은행 SIFI 지정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협의를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위험 감소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  - 또한 예비지정 이후 최종결정 투표까지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여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
  - 한편 FSOC는 비은행 SIFI 지정 및 해제 관련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비은행 SIFI로 최종 지정된 회사에 대해 SIFI 지정에 반영된 핵심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를 제공함
    - 또한 FSOC는 지정 회사의 핵심위험요인 변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절차 개발을 통해 위험요인 해결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절차 뿐만 아니라 지정 후 투명성도 개선함
- 전미보험감독자협회(NAIC: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)는 그간 비은행 SIFI 지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였으나, 이번 해석지침에 대해 규제당국이 비은행 금융회사 및 상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 과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<sup>14)</sup>
  - 한편 국제금융협회(IIF: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Finance)는 이번 해석지침에 대해 활동 중심 평가가 업권내 분열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제공하여, 금융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함<sup>15)</sup> **kiri**

14) [https://www.naic.org/newsroom\\_statement\\_190306\\_fsoc\\_proposed\\_change.htm](https://www.naic.org/newsroom_statement_190306_fsoc_proposed_change.htm)

15) IIF(2019. 5. 10), "IIF responds to FSOC proposal on nonbank systemic risk designation", <https://www.iif.com/>